통합교육환경에서의 사서교사 교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ducation for Teacher Librarians in Inclusive Educational Environment

강숙희 (Sook-Hee Kang) **

Ⅰ. 서론
1. 연구의 의의
2. 연구의 방법 및 목적
3. 선행연구
Ⅱ. 이론적 배경
1. 통합교육의 의의
2. 통합교육환경에서의 학교도서관의 역할

Ⅲ. 통합교육 및 사서교사 교육의 동향
1. 국내 현황
2. 해외 동향

Ⅳ.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사서교사 교육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초 록
통합교육 이념이 법제화되어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이러한 변화가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 정책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도서관이 그 역할을 다하고 학교도서관에 의한 교육적 지원이 학교전체의 특수교육서비스시스템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실무를 담당하는 사서교사가 특별한 교육적 지원에 대한 인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에서 장애 관련 교과목은 거의 배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육의 의의, 통합교육환경에서의 학교도서관의 역할 및 사서교사 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찰하고, 국내외의 통합교육과 관련된 사서교사 교육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통합교육에 대한 사서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대학에서 교육하여야 할 내용을 추출하여 대한 문헌정보학과의 사서교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사서교사 교육, 학교도서관,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

ABSTRACT
In recent years, inclus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regular classrooms and special classrooms in mainstream schools has been a major stream of special education. However education for teacher librarians in Korea has not been responsive to these trends. A few of department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universities offer courses that include information about special needs students.

This study addressed the implications of inclusive education, the roles of school library and the training needs of teacher librarians for service to special needs students. And it analyzed tendency and current states of teacher librarians education on inclusive education.

As a result, it is recommended that departments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n universities offer more courses concerning educational support for special needs students in their curriculum and include of special modules in their most of courses offered to enhance the skill of future teacher librarians to cater for special educational needs.

Keywords: Teacher librarians education, School library, Inclusive education, Special needs student.

* 이 논문은 2011년도 인천대학교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hkang@incheon.ac.kr)
1. 서론

1. 연구의 의의

오늘날 특수교육의 세계적인 동향은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아동들에게 분리교육이 아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서 비정상 아동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교육환경을 지원하는 통합교육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장애인 개개인의 특수교육요구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비정상아동의 특수교육적요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통합교육이 실질적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생성된 것이다.

통합교육이 강조되면서 영국이나 미국 등을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접근해서 학습하는 것을 범죄화하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분리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이행해 가고 있다.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통합교육이 특수교육의 주요 정책으로 대두되었으며,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과 더불어 통합교육의 필요성이 법적으로 명시되는 등 구준히 강조되어왔다.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와 또래들과 동등하게 교육에 참여할 권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이 주요되면서 일반학교에서 또래들과 함께 교육받고 학업에 참여하는 장애아동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고,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이분체제로 운영되어오던 교육은 개별화 교육을 강조하는 7차 교육과정의 개정이후 통합 교육과정을 도입하며 급격히 하나의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수년간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교육지향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로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매우 증가하여 2011년 4월 현재 55,340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70.1%에 이르렀다.

그러나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일반학교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적절성 문제, 즉 특수교육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에 알맞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교육적 개혁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이러한 교육적 개혁을 위해, 2011년 4월 현재 55,340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70.1%에 이르렀다. 

2) 교육과학기술부, 2011 특수교육통계, 〈http://www.mest.go.kr/〉 〈인용 2011. 11. 16.〉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교육의 방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성결재문의 수립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정의)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가 주요 구성원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체계에 참여하여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의 특수한 교육적 요구에 따른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질적인 삶을 보장하고,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통합교육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이나 사서교사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자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그 기본 방향을 두고 있어 교육환경이 학생 중심의 열린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등의 방향으로 옮겨가며 따라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보의 중요성이나 기술적인 발전 등을 감안한 정보활용교육이나 도서관 협력수업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관련 법률과 정책, 연구 문헌 등에서 통합교육 환경을 고려한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장애학생 역시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당연히 학교도서관의 교육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애인을 특성상 비장애학생과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구별된 교육서비스가 필요하다.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교도서관을 통한 교육적 지원이 비장애인학생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통합교육의 실시로 인하여 특수한 요구를 가진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의 일원이 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의 교육대상으로서는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통합교육환경에서 학교도서관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대상으로 수용하여 그들의 능력과 요구에 맞는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서교사의 통합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 및 교육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현황, 사서교사의 교육 현황 등을 통하여 학교도서관의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지원의 필요성 및 사서교사의 통합교육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서교사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목적

본 연구는 사서교사 양성 및 통합교육 관련 교사 교육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사서교사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2조(개별화교육) 1)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전문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통합 시행규칙」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1)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 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와 통합교육환경에서의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사서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고찰한다.

둘째,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현황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도서관 교육대상으로서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셋째, 국내외의 통합교육관련 사서교사 교육 동향을 통하여 통합교육환경에 대응한 사서교사 교육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

넷째, 통합교육환경에 대응한 사서교사의 교육 방안을 교육내용 중심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교육과, 연수기관 등의 사서교사 양성기관으로 하여금 학교도서관 환경이 통합교육 실시로 인하여 변화되고 있으며,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학교도서관 역시 특수교육대상자가 비장애인학생과 동등한 차적으로 교육 및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데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대학 및 사서교사 양성기관의 교과과정에 사서교사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특수한 교육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교과목을 포함시킴으로써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의 역할을 통하여 통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선행연구

국내의 경우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사서교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는 일반학교와 비장애인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사서교사 양성 제도 및 교육에 관한 연구는 구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통합교육환경에서의 학교도서관의 역할이나 사서교사의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사서교사 교육 분야의 연구는 주로 사서교사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내용의 개선을 주장하며, 대학 문헌정보학과의 기본 이수과목 개선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사서교사 교육에 관한 연구

학교도서관의 특수교육대상자 서비스 및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관련 문헌정보학과 교육내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미숙, 송기호는 정신지체 특수학교에서 도서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 6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특수학교에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험한 장애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인식 및 담당교사들이 생각하는 특수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김선호는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장애와 관련된 정규 교과목 개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 문헌정보학과 학부와 대학원 교과목 개요를 학과 홈페이지와 참고도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장애와 관련된 교과목의 정규 개설 필요성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도와 장애 관련 내용을 담당 교과목의 강의에 포함시키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IFLA의 1993년, 1997년 총회에서는 소외계층의 요구에 대한 문헌정보학 교육자들의 인식을 촉구하고, 사서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등,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를 전후하여 학교도서관의 장애학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서 교육 및 혼란 프로그램의 부족을 지적하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소외계층 서비스를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는 문헌정보학 대학에 토론되다는 것을 지적하고, 문헌정보학과 및 문헌정보학 대학의 교육과정에 장애인서비스가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통합교육 정책의 실험으로 인하여 일반학교에 재학하게 된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학교 도서관 서비스 및 학교사서의 교육·훈련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이다.

Janet Murray는 1994년부터 4년에 걸쳐 오스트레일리아의 Victoria 주와 South Wales 주에

12) Janet Murray, “Enhancing the skills of school library staff to cater for individual student needs,” op. cit.
있는 1,454개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일반학급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평가하였으며,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례연구에서 통합교육환경에서의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연구하였다.


L.L. Walling15)은 2000년 당시 ALA 인증 55개 문헌정보학대학 학장을 대상으로 장애인서비스 관련 3개 주제에 관한 교육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들 3개 주제를 강의에 포함하고 있는 교과목이 있는지, 있으면 필수과목인지 선택과목인지지를 조사하여 졸업생들에게 장애인서비스에 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Deborah J. Carlos16)는 ALA 인증 55개 문헌정보학대학 중 9개 대학의 2004-2005학년도 교과과정, 강의개요 및 수강참고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장애인서비스 관련 교육내용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대학의 도서관의 목록을 검색하여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관련 자료의 소장여부를 조사하였다.

松戸宏子17)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영국의 사회적 배경, 사회와 학교의 관계, 특수요구교육과 학교 도서관 관계 등을 고찰하고, 사례조사로서 영국 초등학교 사서교사를 면담하여 특수교육지원에 대한 사서교사의 인식, 다른 직원과의 협력,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조사하였다.

松戸宏子18)는 일본 14개 지방자치체의 공립소학교와 중학교 사서를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학교사서의 의식과 현황, 학교사서의 대응상의 고충, 이에 대한 학교사서의 대처방안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17) 松戸宏子, “イギリスの特別なニーズ教育と学校図書館の関わり: 社会背景と学校図書館調査事例をもとに,” 圖書館情報メディア研究, 第3巻, 第1号(2005), pp.89-120.
Ⅱ. 이론적 배경

1. 통합교육의 의의

21세기 특수교육의 동향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통합교육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장애인교육법」) 제2조.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가리킨다(「장애인교육법」 제15조). 우리나라의 「장애인교육법」 제15조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11개 범주로 나누고 있다. 이는 장애유형을 15개로 구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과 범주 구분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학습장애를 제외하면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범주와 일치하고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학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다. 즉 유네스코의 표준국제교육분류에서 말하는 특수요구학생의 개념보다 좁은 범주로, 언어, 종교, 문화적 소수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특수교육의 근본적 목적에 비춰 볼 때, 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들과의 통합교육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서 주목받고 있다. 19) 통합교육은 각 나라마다의 교육과정과 교육제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공평성, 권리와 자격, 공동체 의식, 참여와 다양성의 존중에 기초하여 실행된다. 따라서 통합교육의 확대는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배터리적 의식을 강소시키며, 일반적으로 장애학생 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과 관련되어 모든 학습자들을 위한 배움과 참여를 격려하며, 사회적인 계급, 성별, 장애, 민족성에 관계없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20)

우리나라는 1977년 「특수교육전문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교육이 제도권으로 처음으로 들어 오게 되었으나 법 내용의 선언적 의미나 조항의 혼수로 인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통합교육은 1994년 「특수교육전문법」의 개정과 더불어 그 필요성이 법적으로 명시되는 등 구체적 강조되어왔다. 그 후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이분체제로 운영되어오던 특수교육은 7차 교육과정 개정이후 통합교육 과정을 도입하면서 특수학교 재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7년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장애아동의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장애인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에 입학적으로 배치하는 것과 같은 과거의 물리적 통합에서 벗어나 교수-학습적 통합(교육과정적 통합) 및 사회적 통합(교육결과적 통합)의 의미까지 확대하여 제시하였으며, 통합교육의 지원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의 기본 철학은 통합교육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정도 및 교육 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 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통합교육의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다.22) 또한 이 법에 기초한 '제3차 특수교육발전계획(‘08-‘12)’ 역시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및 특수교육 지원을 핵심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 통합교육환경에서의 학교도서관의 역할

학교도서관은 학교교육의 핵심적인 도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 전체의 교육 프로그램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에 통합되어야 하며,23) 평생학습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자료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38조에서는 학교도서관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로 정의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이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게 됐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역할 및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였고, 특수교육과 정보이용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역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 강화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즉 교수-학습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활용교육과 도서관활용수업의 제도화, 도서관 운영 및 관리 전담인력 확보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통합교육이 보편화되어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여 학교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은 아직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21) '장애인교육법', 제3조는 '교육기본법'과 달리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만3세 미만의 장애아동교육과 전공과 교육은 무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통합교육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도서관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 환경화 정책을 통하여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질적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며, 사서교사 또한 계약적으로 충원하고 있어, 학교도서관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의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 관련법은 민주사회주의 기본이념에 입각한 동등한 권리보장과 차별금지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근대 이후 도서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당가나단의 도서관 5원칙을 비롯하여, IFLA가 제작하고 UNESCO가 비준한 학교도서관 선언 역시 연령, 인종, 성별, 종교, 국가, 언어, 직업 및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학교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한 학교도서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일반적인 서비스나 자료를 이용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수한 자료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학교도서관의 임무로 명시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이 일반학교에 등록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개인적인 성장과 비장애 동등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충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Janet Murray는 그의 연구에서 우호적이고 편안하며 접근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도서관의 중요성과 관리능력과 편안한 게이지에 효율적인 사서교사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비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학생, 사서교사, 특수교사와의 인터뷰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통합교육환경에서의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시설로서의 도서관: 사서교사의 우호적인 태도와 안전적인 접근성이 중요하다. 일부 지역 장애학생들에게는 공공도서관까지의 거리나 접근편의성 문제로 인하여 학교도서관만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서관일 수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성인기에 일반인들과 많은 여가시간을 가지므로 도서관이 그들의 평생학습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이용 경험과 자신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공공도서관 이용자로 유인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정보활용능력: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독서는 중요한 레크레이션이다. 대체로 학교의 레크레이션은 그림책, 스토리텔링 등의 수단을 통하여 외기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킨다. 이들에게 정보활용능력을 습득할 기회는 자존감과 독립심 형성에 도움이 되는 평생의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서교사는 개별지도를 위하여 특수교사와 협력하여 교육내용, 교육자료 등의 계획을 세우고, 정보기술과정을 보다 세부적인 단계로 구분해서 가르치는 등 장애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정보활용수업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정보기술: 학습장에 학생들은 대체로 인쇄매체와는 대조적으로 창작 및 시각적 자극에 적극 적으로 반응한다. 컴퓨터는 레크레이션에 사용되며, 정보접근에 사용되며 장애학생들에게 중요한 도구이다. 전자매일이나 기타 인터넷 수단은 인격이나 신체적 속성을 보다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동성이 제한된 학생들 역시 방해물 없이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조공학은 인쇄물이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외에 학업성취도와 교실 활동의 향상, 동기유발과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유도할 수 있다.

(4) 도서관 학생보조원: 특수교육대상자를 도서관 보조원이나 모니터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자신감과 자존감 형성에 도움이 되고, 비장애학생들의 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사서교사의 인내가 요구되는 하나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사회적 기능을 배우고 실습할 기회가 된다.

(5) 비장애학생의 장애에 대한 평가와 수용: 사서교사는 도서관 장치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할 수 있다. 장애에 관한 자료와 교사용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특수 교사와 교실교사의 교수를 지원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松戶宏子(26)는 영국 초등학교 도서관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① 학생 도서관 보조원 제도: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도서관의 학생보조원으로 활동하게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자기존중을 높이고 자신감을 갖고도록 한다.
② 독서 그룹: 독서 및 도서관 이용의 계기를 제공하여 독서 및 도서관 이용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한다.
③ quick reading corner 설치: 황자는 그지만 내용은 연령에 맞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자료, 쉽게 읽을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코너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④ Homework 그룹: 방과 후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여 숙제나 학교수업에서 알기 어려웠던 것을 교사나 학습지도 보조원에게 물어볼 수 있게 한다.
⑤ 시청각자료의 제공: 독서가 서투른 학생이나 식자장애학생에게 낭독테이프나 비디오, DVD의 대출을 실시한다.
⑥ 교재복사서비스: 독해곤란아동에게 숙제에 사용할 보조교재를 복사해 준다.
⑦ 개개인에게 적합한 대입: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도서관이용 교육 자료를 따로 준비하는 등, 학생의 특성이나 개별적인 수준을 토대로 학생의 이해를 돕도록 배려한다.
⑧ 학습지원: 특수교육대상자가 전 교육과정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개인에게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에 대한 상담을 해준다.

3. 통합교육을 위한 사서교사 교육의 필요성

최근 장애인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술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장애인바젤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교육법 등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및 특수교육서비스에 대한 의무사항은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서교사는 통합교육에 대한 법과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통합교육이 확대필수록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사, 통합학급 담임교사, 학부모 등이 서비스대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의 사서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역할과 자질을 갖추고 과업을 수행하도록 이끄는 교사교육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일반 학생들과 다른 학습특성과 그들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교수활동 역량이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습 성과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사서교사와 통합교육의 이념을 이해하고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장애학생들을 교육대상으로 수용하여 그들의 특성이 교육적 요구를 교육활동에 반영하고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교육대상자로서 장애학생은 장애라는 특성상 비장애인학생과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구별된 교육서비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는 일반학교 내에서 교육대상으로 그 비중을 더해가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사서교사에게는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1997년 IFLA 총회에서는 “사서를 양성하는 대학은 모든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사서를 교육시키켜야 한다”는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 후 미국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문헌정보학대학에서 장애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 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육에서는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서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은 특수교육대상자 및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의 사서교사들이 통합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9) 김선호, op. cit., p.300.
III. 통합교육 및 사서교사 교육의 동향

본 장에서는 국내외의 통합교육 현황, 사서교사 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육내용, 특수교육을 위한 일반교과교사의 교육내용 등을 고찰함으로써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사서교사 교육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국내현황

1.1 통합교육 현황


〈표 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현황

<table>
<thead>
<tr>
<th>연도</th>
<th>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th>
<th>일반학교</th>
<th>전체</th>
</tr>
</thead>
<tbody>
<tr>
<td>2007</td>
<td>22,963(34.8)</td>
<td>42,977(65.2)</td>
<td>65,940(100)</td>
</tr>
<tr>
<td>2008</td>
<td>23,400(32.7)</td>
<td>48,084(67.3)</td>
<td>71,484(100)</td>
</tr>
<tr>
<td>2009</td>
<td>23,801(31.7)</td>
<td>51,386(68.3)</td>
<td>75,187(100)</td>
</tr>
<tr>
<td>2010</td>
<td>23,944(30.0)</td>
<td>55,767(70.0)</td>
<td>79,711(100)</td>
</tr>
<tr>
<td>2011</td>
<td>24,741(29.9)</td>
<td>57,292(70.1)</td>
<td>82,665(100)</td>
</tr>
</tbody>
</table>

- 주: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진정법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장애영아 및 유치원생이 포함되었음.

〈표 2〉에 의하면 2011년도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82,665명 중 장애영아와 유치원생, 전공과를 제외한 초·중등학생은 76,071명이다. 이 중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0,747명(27.3%)이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은 42,243명(55.5%), 전일제 통합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은 13,081명(17.2%)이다. 즉 전체 초·중등 특수교육대상자 중 55,324명(72.7%)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 표 2.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현황 - 초·중등학교(2011. 4. 1. 현재)

<table>
<thead>
<tr>
<th>구분</th>
<th>특수학교</th>
<th>일반학교</th>
</tr>
</thead>
<tbody>
<tr>
<td></td>
<td>특수학급</td>
<td>일반학급(전일제통합학급)</td>
</tr>
<tr>
<td>초등학교</td>
<td>7,115(20.3)</td>
<td>22,414(63.8)</td>
</tr>
<tr>
<td>중학교</td>
<td>6,079(29.6)</td>
<td>10,951(53.4)</td>
</tr>
<tr>
<td>고등학교</td>
<td>7,553(37.0)</td>
<td>8,878(43.4)</td>
</tr>
<tr>
<td>계</td>
<td>20,747(27.3)</td>
<td>42,243(55.5)</td>
</tr>
</tbody>
</table>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1 특수교육통계, p.3.

### 표 3. 우리나라 전체 일반학교 교육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일반 초·중등학교 11,317개교 중 8,331개교(73.6%)가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특수학급 설치학교는 5,831개교(51.5%)이며, 전일제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5,479개교(48.4%)이다.

전체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설치된 전체 학급 239,404개 중 특수학급은 8,126개(3.4%), 전일제 통합학급은 12,198개(5.1%)로 통합학급은 일반학교 전체 학급 중 20,324개(8.5%)에 달한다.

일반 초·중등학교 재학생 6,986,853명 중 특수교육대상자는 53,246명(0.8%)이며, 그 중 42,243명 (0.6%)은 특수학급에, 13,081명(0.2%)은 전일제 통합학급에 재학하고 있다.

### 표 3.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현황(2011. 4. 1. 현재)

<table>
<thead>
<tr>
<th>학교 수(개, %)</th>
<th>학급 수(개, %)</th>
<th>학생 수(명, %)</th>
</tr>
</thead>
<tbody>
<tr>
<td></td>
<td>특수학급실치교</td>
<td>전일제통합학급운영교</td>
</tr>
<tr>
<td>초</td>
<td>3,672(62.4)</td>
<td>2,631(44.9)</td>
</tr>
<tr>
<td>중</td>
<td>1,412(44.8)</td>
<td>1,557(49.4)</td>
</tr>
<tr>
<td>고</td>
<td>747(32.7)</td>
<td>1,285(58.3)</td>
</tr>
<tr>
<td>계</td>
<td>5,831(51.5)</td>
<td>5,479(48.4)</td>
</tr>
</tbody>
</table>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1 특수교육통계, pp. 7, 65, 95; 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통계 주요지표31)

* 전체는 국내 일반학교의 전체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주: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 중에는 특수학급과 전일제 통합학급을 동시에 운영하는 학교가 있으므로 특수학교 설치교수와 전일제 통합학급 운영교수의 합은 학교 수의 소계 및 전체와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별 분포(표 4)를 보면, 정신지체(28,855명, 52.2%)가 가장 많아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폐증(6,849명, 12.4%), 학습장애(5,578명, 10.1%) 순으로 많아, 전체 11개 유형 중 이들 3개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74.7%에 이른다.

특수학급 학생들은 정신지체(25,261명, 59.8%), 자폐성장애(4,184명, 9.9%), 정서·행동장애(1,748명, 4.1%) 등의 정신적 장애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일제 통합학급의 경우, 정신지체(3,594명, 27.5%)와 지체장애(2,953명, 22.6%)가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수학급에 비해 정신적 장애의 비중이 낮은 반면, 지체장애, 건강장애, 정차장애, 사각장애 등의 신체적 장애의 비중이 크다. 이와 같은 장애유형별 분포와 특성은 사서교사의 교육도서관 서비스 계획 수립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장애유형별 초·중등 통합교육 현황(2011. 4. 현재)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시각 장애</th>
<th>정각 장애</th>
<th>정신 장애</th>
<th>정서·행동장애</th>
<th>자폐성 장애</th>
<th>의사소통장애</th>
<th>학습 장애</th>
<th>건강 장애</th>
<th>발달 장애</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일반 학교</td>
<td>특수학급</td>
<td>336 (0.8)</td>
<td>893 (2.1)</td>
<td>25,261 (59.8)</td>
<td>3,896 (9.2)</td>
<td>1,748 (4.1)</td>
<td>4,184 (9.9)</td>
<td>727 (1.7)</td>
<td>4,188 (9.9)</td>
<td>458 (1.1)</td>
</tr>
<tr>
<td>전일제 통합학급</td>
<td>414 (3.2)</td>
<td>1,455 (11.1)</td>
<td>3,594 (27.5)</td>
<td>2,953 (22.6)</td>
<td>578 (4.4)</td>
<td>528 (4.0)</td>
<td>374 (2.9)</td>
<td>374 (3.0)</td>
<td>1,578 (13.0)</td>
<td>147 (1.1)</td>
</tr>
<tr>
<td>계</td>
<td>750 (1.4)</td>
<td>2,348 (4.2)</td>
<td>28,855 (52.2)</td>
<td>6,849 (12.4)</td>
<td>2,326 (4.2)</td>
<td>4,712 (8.5)</td>
<td>1,101 (2.0)</td>
<td>5,578 (10.1)</td>
<td>2,156 (3.9)</td>
<td>699 (1.3)</td>
</tr>
</tbody>
</table>


2011년 현재, 통합교육 담당교원은 특수학급의 경우, 8,658명의 교원과 5,93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전일제 통합학급에는 712명의 특수교육보조원만 배치되어 있다. 교육복지교사와 치료교사를 제외하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중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비율은 95.8%, 특수교육 연수를 이수한 비율은 2.6%, 연수 미수 일반교사는 2.5%이다. 그리고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경우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비율은 1.4%이며, 특수교육 연수를 이수한 비율은 27.7%, 연수 미수 비율은 71.0%이다. 32) 통합학급 담당교사 중 70% 정도가 특수교육연수수강자로 받지 않은 일반교사인 현실에서 일반교사를 위한 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2011년 4월 현재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율은 평균 86.1%이로, 초등학교 86.6%, 중학교 86.6%, 고등학교 82.3%이다. 33)

1.2 사서교사 교육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사서교사 자격취득 이수 기준, 국내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 특수교육을 위한 일반교과교사의 교육 내용 등을 분석하여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사서교사 교육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사서교사 자격증을 대학에서 발급하기 시작하였고, 현대 사범대학,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 교육학과의 사서교육전공, 기타 사서교사 양성기관을 통해서 사서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양성체계를 갖추고 있다(교원자격검정법 제19조).

국내 4년제 대학 중 사서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학은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와 교직과정인 양성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및 도서관학과를 포함하여 전국 32개 대학으로, 우리나라 사서교사 양성은 대부분 일반대학의 교직과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내용이 교사직보다는 사서직으로서의 특성에 더 적합해 있다.

1)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서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 기준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영역</th>
<th>이수학점 및 과목</th>
<th>세부이수기준</th>
</tr>
</thead>
<tbody>
<tr>
<td>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td>
<td>교직이론</td>
<td>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td>
<td></td>
</tr>
<tr>
<td></td>
<td>교과교육</td>
<td>제외</td>
<td></td>
</tr>
<tr>
<td></td>
<td>교과실습</td>
<td>2학점 (4주)</td>
<td></td>
</tr>
<tr>
<td></td>
<td>전공</td>
<td>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td>
<td></td>
</tr>
<tr>
<td></td>
<td>교직이론</td>
<td>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td>
<td></td>
</tr>
<tr>
<td></td>
<td>교직소양</td>
<td>4학점 이상 (1) 특수교육학과과정 (2학점 이상) ② 교직실무 (2학점 이상)</td>
<td></td>
</tr>
<tr>
<td></td>
<td>교과실습</td>
<td>4학점 이상</td>
<td></td>
</tr>
<tr>
<td></td>
<td>전공</td>
<td>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 이상 포함)</td>
<td></td>
</tr>
</tbody>
</table>

자료: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교육과학기술부 교 2000-1호, 제 2009-29호)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2000년 고시한 교육부고시(교육부고시 제 2000-1호)에 의하면, 사서교사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기준으로 교직과목은 교직영역에서 총 16학점(교직이론 14학점, 교육실습 2학점)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며,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 영역이 제외되었고, 교육실습은 실무실습(사서실습)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학교도서관이 아닌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의 기관에서 사서실습을 받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 전공영역의 기본이수과목은 분류학, 목록학, 도서관 전산화, 독서지도론, 정보검색, 정보봉사론, 학교도서관운영, 정보매체론의 8개 교과목이다. 기본이수과목 8개 중 5개의 과목(14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교과에서 총 42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7월 개정되어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 2009-29호에서는 교직영역에서 총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4학점 이상, 교직소양 4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공영역에서 기본이수과목 7개 과목(21학점)과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을 포함하여 총 50학점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교직영역에서 교직소양이 추가되어 특수교육학개론(2학점)과 교직실무(2학점)과목이 신설되었으며, 교육실습과목이 실무실습에서 학교현장실습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교육봉사활동(2학점)이 신설되어 1학점 당 30시간, 총 60시간 정도의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해야 사서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전공영역에서는 기본이수과목이 이전 5개의 과목(14학점)에서 7개 과목(21학점)으로 늘었으며, 이전에 제외되었던 교과교육이 전공과목으로 전환되어 8학점(3과목) 이상으로 설정되었다.

2009년 입학자부터는 전공영역의 기본이수과목이 5과목(14학점)에서 7과목(21학점)으로 늘어나 교과교육이 전공영역으로 포함되었으나, 8개 기본이수과목은 2008년 이전과 동일하며, 교과교육영역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의 개정을 통하여 교과교육영역에 속하는 '문헌정보교과론' 이외에 통합교육환경을 고려한 '특수교육매체론' 등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목을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또한 교직소양영역이 추가되어 '특수교육학개론' 과목이 포함된 것은 통합교육환경을 반영한 첫 움직임으로 고무적이다 하겠다. 학습자에 대한 이해는 자료, 시설, 장비, 서비스 프로그램 등 학교도서관 운영뿐만 아니라 독서지도와 정보활용교육, 도서관 활용수업과 협력수업 등의 교수학습 영역에 이르기까지 사서교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통합교육 환경에서 특수교육학개론이 교직과정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사서교사 양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전공영역 기본이수과목의 문제점으로 전공영역에서 교과교육이 제외되어 있으며, 주로 정보관리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사서교사의 교수능력을 향상하기 어렵고, 도서관활용수업, 정보활용수업, 협력수업, 학습독서와 같은 새로운 교육방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기본이수과목에 추가되어야 할 교과목으로 문헌정보교육론, 문헌정보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어린이/청소년 자료, 정보활용교육론36)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최근 국내의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들 대상으로 장애와 관련된 주제를 담당교과목의 교수요목에 포함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37)에 의하면, 4년제 학과 33개 중에서 장애 관련 주제를 정규교과목으로 개설한 학과는 2개학과에 불과하며, 나머지 31개 학과와 2년제 학과는 전혀 개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의 경우, 1개 학과가 개설하고 있으며, 26개 학과가 개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정보학과의 학부 및 대학원 교과목 개설에서 장애 관련 교과목은 거의 배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38).

그리고 4년제 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154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81명 중 자신의 강의에 장애 문제를 포함시키는지 응답자는 17명(21%)이며, 나머지 64명(79%)은 이 주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즉 20% 정도의 교수만이 장애 관련 내용을 강의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비록 적은 수이기는 하나 장애 문제를 강의에 포함시키고 있는 17명의 교수들이 강의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장애관련 세부주제는 장애인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유형, 장애관련법, 보조공학의 순이었다.

장애 문제를 강의에 포함시키고 있는 17명의 교수들의 강의 교과목은 문헌정보학 입문, 공공도서관, 장서개발론 등을 비롯하여 전 과목에 분산되어 있어 뚜렷한 특징을 찾아 어려우며,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교수들이 담당하는 교과목 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 개설되어 문헌정보학에 기반을 두면서 장애 및 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정보서비스 전문인력의 배출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는 나사렛대학 정보문헌정보학과의 특수교육 및 장애인서비스 관련 교과목 중에는 사서교사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에 필요한 교과목으로 특수매체 제작론1, 2, 특수정보서비스론, 보조공학이해 그리고 수학, 점자 등 장애유형별 의사소통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39)이 포함되어 있다.

3)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교사 교육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이수과목 중 특수교육영역(공통) 과목은 특수교육학, 특수학교교육과정론, 장애학생통합교육론, 장애아동학 및 평가, 특수교육공학, 그리고 장애유형별 교과목 10개를 포함하고 있다(40).

38) 국내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과목을 검토한 결과, 2011년 11월 현재, 예비사서교사가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 서비스 대응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 즉 특수교육 및 장애인서비스 관련과목 개설 현황은 김선호의 연구와 차이가 없었다.
39) 나사렛대학 정보문헌정보학과 홈페이지, ⟨http://cms.knomu.ac.kr/blis⟩ [인용 2011. 11. 30].
40) 교육과학기술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29호).
일반교사들의 특수교육과목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에 의해, 일반교사들이 가장 수강을 원하는 과목은 장애아동의 심리 및 상담기술에 관련된 과목이었으며, 다음은 장애아동을 위한 교수법과 교수전략에 대한 과목이었다. 그밖에 전단 및 평가, 언어 및 의사소통의 이해, 행동수정 및 사회성 관련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우정한 등은 대학원의 통합학급을 담당할 일반교사 양성과정과 특수교사 양성 과정에서 공동으로 요구되는 교과과정으로, 통합교육의 철학적 배경, 통합교육의 이론과 원리, 통합교육의 지원, 통합교육의 교수·학습, 통합교육에서의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통합교육에서의 교수공학, 통합교육에서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촉진 방안, 장애아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해외 동향

2.1 통합교육과 교육도서관


통합교육은 강조되면서 영국이나 미국 등을 중심으로 장애학생들을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접근해서 학습하는 것을 법제화하였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일반 교육과정에 의한 학습활동에 제외됨이 없이 참여하고, 그 활동에서 학습상의 진보가 나타나야 한다는 통합교육의 절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화교육계획(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을 중요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역할 변화를 성공적인 통합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통합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같이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교육 국가표준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곳도 있다.

영국은 통합교육으로 인한 학생의 다양화가 야기하는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Whole School Approach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모든 학생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모든 자원을 총체적

41) 권현수, op. cit., p.477.
44) 1994년 유네스코가 스페인정부와 공동개정한 "특별한 요구교육에 관한 세계대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특수한 요구교육’이라고 하는 향후 특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45) 김영숙, op. cit., p.201.
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의 문제를 전 교원이 공유하여 학교 전체가 협력하여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993년 교육법」을 근거로 특수한 요구교육에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을 조정하는 책임자로서 SENCOS(Special Educational Needs Coordinators)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의 학교도서관에서는 SENCOS와의 협력이 사서교사의 중요한 역할로 부과되어 있다. 사서교사는 SENCOS 및 다른 교직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이 교내 특수교육지원체제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발행한 학교도서관 지침서[46]에 사서교사의 위치를 명문화하여 교내에서의 사서교사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의 학교도서관 지원기반으로서 SLS(School Library Services)는 전임 학교 사서가 상근하지 않는 학교도서관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독서물이나 책의 구입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1999년 UNESCO・IFLA 공동 학교도서관선언에서 학교도서관의 서비스는 분교구성원 전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발표된 후, 학교도서관 평가에 특수교육교육에 관련된 학교도서관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47]

일본의 경우, 2004년 1월 문부과학성이 「小・中学校におけるLD(学習障害), ADHD(注意缺乏多動性障害), 高機能自閉症, 児童生徒の教員支援体制の整備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試案)」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특별지원교육을 위하여 개별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특별지원교육코디네이터를 두는 등, 교내 지원 체제 구축과 교원, 직원, 학생등록, 보호자, 전문가, 지역 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48] 그리고 중앙교육 심의회교원양성부회에서 발행한 「大学における系養成体制の在り方」은 학생에게 특별지원교육에 대한 보다 넓은 전문과 인식을 습득할 체험기회를 제공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49]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은 없다.

2.2 대학 교육

1970년대 Merrilyn Gibson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ALA 인증 59개 문헌정보학대학[50] 중 12개 대학(20%)이 장애인에 관한 주제가 교수목록에 포함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었으며, 1개 대학이

---

개설을 준비 중에 있었고, 15개 대학(25%)이 일반 교과목 중에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었다. 즉 당시 ALA 인증 59개 대학 중 27개 대학(46%)의 졸업생이 장애인서비스에 관하여 배우기회를 가졌다는 것이다.51)


1993년 8월 IFLA의 바르셀로나 총회에서는 문헌정보학 교수자들의 장애인이나 교도소나 병원 수용자, 노인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려는 목적으로 “Interaction Between Library School and Specialized Library Services”로 주제로 위크샵이 개최되었다. 이 위크샵에서는 특수봉사대상자들을 대학 교과과정에 통합하기 위한 해법으로 대학의 대부분의 교과목에 장애인 특성 요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교수요목에 포함시킬 것을 제시하였다.53)

1995년 10월, IFLA는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사서에게 소외계층의 문제를 인식시키고, 대학 교과과정에 이를 반영할 것을 촉구할 목적으로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학교과 과정에 장애인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 세계 430개 문헌정보학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한 88개 대학 중 사회의 전체 그룹에게 봉사한다는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목이 있다는 대학은 66 개교(56개 필수, 10개 선택)로 75%에 달았으나, 70개 대학(80%)이 소외계층을 교수요목에 포함하여 교육하고 있는 교과목이 없다고 했으며, 그 주제에 관한 특정 교과목이 있다는 대학은 없었다.54)

L.L. Walling55)은 2000년 당시 ALA 인증 문헌정보학대학 55 개교를 전수 조사하여 응답한 34개 대학을 분석하였다. 〈표 6〉 캐나다 소재 4개 대학을 제외한 30개 대학(88%)이 개설 교과목의 강의 중에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를 포함하고 있어, 미국 소재 대학은 모두 ADA를 강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서비스는 31개 대학(91%)이, 보조공학은 24개 대학(73%)이 개설 교과목의 강의 내용에 포함하여 교육하고 있었다.

또한 ADA를 강의하고 있는 30개 대학 중 필수과목을 통하여 졸업생이 반드시 ADA를 학습하게 되는 대학은 21개 대학(70%)이었으며, 장애인서비스는 31개 대학 중 18개 대학(58%)이, 보조공학

54) Ibid.
은 25개 대학 중 13개 대학(52%)이 필수과목을 통하여 졸업생이 반드시 수강하게 되어 있었다. 조사에 포함된 4개의 캐나다 대학의 경우, 3개 대학이 장애인서비스를, 2개 대학이 보조공학을 강의하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ALA 인증 문헌정보학 대학의 경우 대부분이 장애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있으며, 그 중 필수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이 반드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이 절반을 넘었다.

L.L. Walling은 장애관련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교과목 명칭을 조사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명칭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기초, 도서관경영, 정보서비스 등을 비롯하여 전 과목에 걸쳐 분산되어 있어 두려던 특징을 찾기 어렵다.

<표 6> ALA 인증 도서관\정보학 대학의 장애관련 교육 현황

<table>
<thead>
<tr>
<th></th>
<th>장애인 관련 주제를 강의에 포함하는 교과목의 개설 현황</th>
<th>교과목 유형별 개설 현황</th>
</tr>
</thead>
<tbody>
<tr>
<td></td>
<td>개설</td>
<td>미개설</td>
</tr>
<tr>
<td>ADA</td>
<td>30(88%)</td>
<td>2(6%)</td>
</tr>
<tr>
<td>장애인서비스</td>
<td>31(91%)</td>
<td>3(9%)</td>
</tr>
<tr>
<td>보조공학</td>
<td>25(73%)</td>
<td>9(27%)</td>
</tr>
</tbody>
</table>

출처: L.L. Walling, op. cit., p.140.

### IV.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사서교사 교육 방안

본 장에서는 앞의 이론적 배경 및 통합교육 관련 국내외 사서교사 교육 동향 등을 바탕으로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사서교사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ne Galler M. 57)은 특수봉사 대상자들을 대학 교과과정에 통합하기 위한 해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문헌정보학 교육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킨다.
둘째, 소외계층을 일반 이용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로서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장애인의 요구에 대한 문헌정보학과 학생의 이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필수과목을 설정한다.

56) 원문에는 3개 대학(10%)로 나타나 있으나 오류인 것으로 보고 2개 대학(7%)로 수정.
57) Anne M. Galler, op. cit., p.366.
독서지도: 장애유형별 독서사료 선택 및 추천 요령 : 독서 흥미 유발 : 독서치료 등.

이상의 교육 내용 중 ①~④는 교직과목에서, ⑤~⑥는 전공과목을 통하여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직과정으로 '특수교육학개론'이 포함되어 장애인 교육에 대한 기본소양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특수교육학개론' 1개 과목으로는 위의 ①~④에 해당되는 내용을 교육하기에는 부족하다. 특수학교사와의 특수교육영역에 기본이수과목(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장애학생통합교육론'과 '장애유형별 장애교육'을 사서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기준의 교직과정에 포함하고, 교직과정 기본이수과목 각각의 교육요목에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단원을 포함하도록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실습과목에 신규로 추가된 교육봉사활동 과목의 이수기간(총 60시간) 중 일부를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에서의 교육봉사로 지정할 경우 통합교육 현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에 실로이 있음을 것이다.

전공과목에 있어서는 2008학년도 입학생까지 사서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기준에서 제외되었던 과목들이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전공영역 8학점으로 추가되었으며, 전공영역 기본이수과목 8개 과목은 추가·변경 없이 이전과 동일한 채로 남아 있다.

선행연구는 사서교사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문헌정보교육론'과 '문헌정보교육과정연구론', '어린이/청소년자료'와 '정보활용교육론' 등 4개 과목을 기본이수과목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 적어도 학교도서관 트랙은 이상의 4개 과목을 개설하여 각각의 교육요목에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단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사서교사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개인의 특수한 교육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장애인 정책이 분리에서 통합으로 옮겨가며 따라 장애인이 중요한 도서관서비스 대상으로 그 비중을 더 해가고 있음을 고려하면,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는 문헌정보학 교육 전반에 추가되어야 할 교육내용이다. 특히 사서교사의 경우, 통합교육으로 인하여 일반 사서직 보다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사서교사 기본이수과목 전반의 교육요목으로 학교도서관의 장애학생 교육지원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정보서비스론', '특수매체론', '웹접근성 및 보조공학 이해' 등의 장애관련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폭넓게 개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특수교육지원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특수교육의 정책 방향이 통합교육으로 옮겨감에 따라 일반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수는 계속 증가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의 70% 이상이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일반 초·중등학교의 70% 이상이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교육의 추이를 보면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또 장애인의 인권 및 복지 관련 법률과 정책이 강화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다.

통합교육 이념이 법에 통합되어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이러한 변화가 학교도서관 및 사서교사 정책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의 변화에 입각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통합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교육적 성과에 대한 인 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중합계획, 각급 학교의 개별화교육계획 등에 학교도서관이 교육지원체제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다.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도서관이 그 역할을 다하고 학교도서관에 의한 교육적 지원이 학교전체 의 특수교육서비스시스템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실무를 맡당하는 사서교 사가 특별한 교육적 지원에 대한 인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에서 장애 관련 교과목은 거의 배제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과 교수 중 강의 중에 장애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 비율은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 미래의 사서교사가 통합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서교사 양성교육 과정에 특수교육대상자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육의 의의, 통합교육환경에서의 학교도서관의 역할 및 사서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국내외의 통합교육과 관련된 사서교사 교육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통합교육에 대한 사서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대학에서 교육하여야 할 내용을 추출하여 대학 문헌정보학과의 사서교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사서교사는 대부분 일반대학 문헌정보학과의 교직과정을 통하여 양성되고 있으며, 사 서교사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과의 교육내용은 교사적보다는 사서적으로서의 전문성에 치중해 있 는 실정이다.

2009년 7월 개정되어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사서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기준으로 교직영역에 교직소양이 추가되어 특수교육학개론(2학점)과 교직실무(2학점)과목이 신설되었으며, 교육실습으로 교육봉사활동(2학점)이 신설되었다. 또한 전공영역의 기본이수과목이 5과목(14학점)에서 7과목(21학점)으로 늘어나고 교과교육이 전공영역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8개 기본이수과목
은 2008년 이전과 동일하며, 교과교육영역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사서교사 교육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 장애에 대한 이해, 특수교육대상자 교수방법, 장애유형별 개발 등, 통합교육을 위한 기본 소양 및 특수교육능력 습득을 위하여 ‘장애학생통합교육론’, ‘장애유형별 장애 아동교육’ 등의 교과목을 교직이론에 포함하고, 교직이론 기본이수과목 각각의 교수요목에 특수교육 대상자 관련 단원을 포함하도록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봉사 활동의 이수시간 중 일부를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에서의 교육봉사로 지정하여, 통합교육 현장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공과목에 있어서는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 적어도 학교도서관 트랙에 '문헌정보교육론', '문헌정보교육과교재연구론', '여러어/청소년자료', '정보활용교육론' 등 사서교사의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고, 사서교사 기본이수과목 전반의 교수요목에 학교도서관의 장애학생 교육지원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정보서비스론’, ‘특수매체론’, ‘웹 접근성 및 보조 공학 이해’ 등의 장애관련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폭넓게 개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특수교육지원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과제로서는,학교도서관이 교내 특수교육지원시스템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학교 도서관이 공헌할 수 있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합교육 현장의 사서교사의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꾀함, 그리고 이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서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에 관한 교육이 미비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적극연수를 통한 현직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그러나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사서교사 연수프로그램은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지원과 관련된 교육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일반교사들의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 연수에도 학교도서관이나 사서교사를 위한 교육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서교사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대학이나 도서관 전문단체뿐만 아니라 교원연수기관에서 사서교사를 위한 통합교육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연수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